



NEWS LETTER

2021년 4월 5일 Vol. 402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취임식 개최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지난 3월 29일 일산병원 5층 대강당에서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조성민 전 의료원장과 채석래 신임 의료원장을 비롯해 권범선 일산병원장, 임성우 한방병원장, 이관 의과대학장, 김동일 한의과대학장,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성민 전 의료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그동안 코로나 19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서울과 경주 캠퍼스, 의료원 등 3원 체제 확립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라며 “앞으로 신임 의료원장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하는 동국대학교의료원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에 채석래 신임 의료원장은 “전문적이고 난이도 높은 진료 체제 구축과 우수 의료진 확보, 성과 평가제도 개선, 병상 증설 등을 통한 상급 의료기관 진입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 스님, 병원발전기금으로 1천 5백만 원 기부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 스님이 동국대일산불교병원에 발전기금 1천 5백만 원을 전달했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권범선 병원장을 비롯해 지도 법사 능지 스님, 최기석 행정처장, 진영숙 간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 3월 26일 일산병원 4층 제1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월주 스님은 “병원에 있는 동안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모든 의료진의 친절하고 따뜻한 배려에 감동을 받았다. 비록 몸은 아팠지만 많은 위로가 됐다”며 “감사한 마음에 적지만 병원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기부 뜻을 전했다.

권범선 병원장은 “병원발전을 위해 큰 기부를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를 밑거름으로 교계 병원으로써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스님들께 다양한 의료혜택으로 보답 드리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무주 향산사 성본 스님, 병원발전기금 1억 원 기부

전북 무주 향산사 주지 성본 스님이 지난 3월 25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

향산사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인 백용성 스님이 1918년 창건한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의 말사다.

이날 전달식을 위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권범선 병원장을 비롯해 지도법사 능지스님, 대외협력홍보팀 김명숙 팀장이 무주 향산사를 방문했다.

성본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건강한 수행을 위해 불교병원으로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더욱 발전되길 바라며 또 스님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불교병원이 많이 건립되었으면 한다”고 기부 뜻을 밝혔다.

권범선 병원장은 “그동안 불교요양병원과 요양원 건립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스님들의 원력을 통해 점점 실현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스님들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도 CS우수부서 시상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3월 26일 2020년 한 해 동안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한 CS우수부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권범선 일산병원장, 최기석 행정처장, 진영숙 간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21년도 CS우수부서는 총 3개 부서로 진료부에서는 2년 연속 외과가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간호부에서 81병동과 행정처 영양팀이 각각 선정됐다. 선정된 3개 부서에는 표창장과 부상으로 포상금 40만 원을 수여했으며 부서 입구에 CS우수부서 상패를 1년간 부착하도록 했다.

권범선 병원장은 “CS우수부서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친절 노하우를 다른 부서들과 함께 공유해 달라”고 말했다.

CS우수부서 선정 기준은 진료개시시간 준수율, 자체 환자경험평가 점수, MOT모니터링 점수, 친절직원 추천 건수를 점수화해 직종별로 우수부서를 선발하고 있다.

